

# 향토산업과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sup>1)</sup>

- 6차 산업화의 논의와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

황 영 모(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hylmsm@gmail.com

## 1. 향토산업과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 향토산업은 이론적 연구에 기반하기 보다 농업·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임
- 향토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연고산업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이동필 외, 2007)
- 향토산업은 어떤 특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산품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한정될 수 있으며, 관광 및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결합된 제조, 서비스, 관광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1차·2차·3차 산업(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 등)이 융·복합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농림수산식품부, 2009)
- 이렇게 볼 때 향토산업은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전략으로서의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와 맥락을 같이 하며, 6차 산업화는 향토산업 발전의 구체적인 실천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노동교류와 같은 인적·물적자원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흐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의 융·복합화를 통한 이익(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전략임
-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우리도 유사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여러 실천사례가 제시되어 오고 있음.
- 분명 6차 산업화는 정체·축소되어 온 농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소득창출과 농촌 지역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6차 산업화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하기 보다는 실천사례에서 제출된 개념적 성격의 조어(造語)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이에 이 글은 농업·농촌 6차 산업화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분석하고, 지역단위 활성화 사례를 6차 산업화의 관점에서 소개하는데 목적이

1) 이 글은 2011. 9. 21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현충일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표문을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2)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2010. 7)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있음

- 아울러 지역단위에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실천에의 과제의 틀을 제시하고자 함

## 2. 6차 산업화의 이해와 파악

### (1) 6차 산업화의 주요 논의 - '되찾기와 수요창출 혁신'<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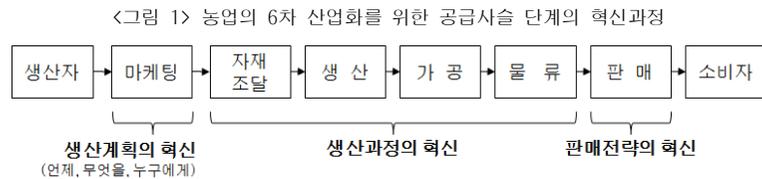
-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개념은 今村奈良臣가 1998년 제시하면서 논의·정책화되어져 오고 있음
- 今村가 제기한 6차 산업화의 개념은 大分縣의 大山농협의 사업활동의 분석에 근거하고 있음
  - 大山농협은 1961년부터 시작된 1차 NPC 운동<sup>4)</sup> 이후 과수농업과 새로운 '고차원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부흥을 도모
- 今村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6차 산업화를 위해 2가지 조건을 제시
  - 농업·농촌이 후퇴한 가운데 6차 산업화(0×2×3=0)는 성립되지 않음
  - 1차, 2차, 3차 산업의 단순 결합이 아닌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강조
- 농업은 생산만을 담당하는데 농산물·식품가공(2차 산업)은 식품조제 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농업·농촌에 관계된 정보와 서비스, 관광 등(3차 산업)은 대부분 도소매업·정보서비스산업·관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농업분야로 되찾아 오지'는 제안
- 결국, 今村가 제시한 6차 산업화의 개념<sup>5)</sup>은 '농업적 관점에서의 다각화 또는 부가가치 창출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최근에는 농업경영을 생산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관광산업 등과 연계·확대하여 재 정의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을 파악하고 있음
  - 농업을 식품산업(가공·유통·외식)과 다양하게 결합된 가운데, 이른바 관광·교육·교류의 비즈니스와 관계를 깊게 하면서 스스로의 활로를 개척하는 유형의 산업으로 파악(生源寺眞一, 2006)
- 특히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논리구축의 필요성을 小田切德美가 제기
  - 농산물의 국내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今村의 '농업으로의 되찾기'의 가능액이 감소하고 있음에 주목

3) 6차 산업화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일본의 논의 과정을 정리·제시하여 우리의 6차 산업화의 파악과 이해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 이에 대한 내용은 吉田成雄(2010)을 참조.  
4) 1961년 매실을 심어 소득을 올리자는 생각을 NPC(New Plum and Chestnuts)에 담음. 1965년부터 시작된 2차 NPC 운동은 소득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이 풍요로운 사람 만들기로 확대(Neo Personality Combination). 1969년부터는 3차 NPC 운동을 농촌의 파라다이스라는 생활권 운동으로 확산(New Paradise Community). 자세한 내용은 大分大山농협 홈페이지([www.ovama-nk.com](http://www.ovama-nk.com)) 참조.  
5) 국민소득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다시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증대되어, 그 결과 산업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페타·클릭의 법칙을 활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 자세한 내용은 今村奈良臣(2010)을 참조.

-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6차 산업화는 가공품의 제조·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광·정보서비스, 농가 레스토랑 등 지역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파악하고 있음
- 결국, 6차 산업화는 '되찾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혁신(innovation)에 의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이 강조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2) 6차 산업화의 주요내용**

- 이상과 같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논의와 농업경영의 확대는 정책변화에 반영되어 나타남
  - 식료산업클러스터 사업(농림수산성, 2005년~) : 지역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업과 관련 산업을 연계,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 상품의 개발과 판로확대 등의 대책
  - 농상공 연계 촉진법(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2008년~) : 중소기업의 경영향상을 목적으로 6차 산업화를 강하게 의식한 정책 수단
  - 6차 산업화법(농림수산성, 2010년~) : 지역자원 활용한 농림어업자의 신 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대책
-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생산자가 식료의 공급사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생산자 소득의 향상을 달성하는 '생산자發 가치사슬 모델'을 상징하고 있음
  - 생산계획(상품전략)의 혁신, 생산과정의 혁신, 판매전략 혁신을 강조



\* 자료 : 農林水産省, 2011.

- 6차 산업화 실천의 2가지 방법
  - 농림업자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일체화한 소득증대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
  - 2차·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비즈니스와 신 산업의 창출(농상공 연계의 추진,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
- 6차 산업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 농업개발자금, 단기운전자금, 신상품개발·판로확대 보조금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

〈표 1〉 일본 농상공 연계 및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정책 비교

구 분	농산어촌 6차 산업화	농상공 연계
목 적	지역자원 활용으로 고용확보와 소득향상	농상공 연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 념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상류(농림수산업)→하류(상공업)
근 거	6차 산업화법	농상공 연계 촉진법 기업입지 촉진법 개정
시 기	2010. 12 공포	2008. 5 공포
부 처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지 원	무이자, 보조금 지원 등	저리융자, 세제우대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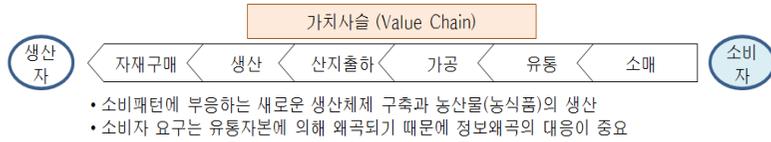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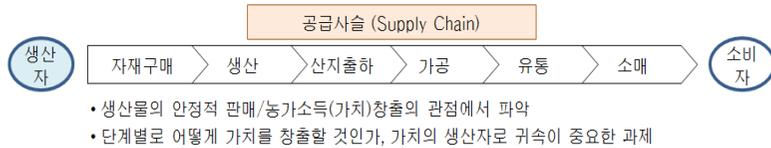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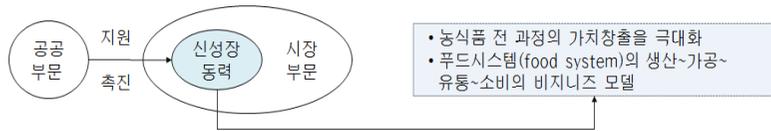
\* 자료 : 황영모, 2011a.

**(3) 6차 산업화를 바라보는 2가지 입장**

-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산업적 관점에서의 정책이지만, 실현되는 장이 농촌지역(지역농업<sup>6)</sup>이기 지역적 관점에서의 파악과 실천이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접근과 실천사례의 현실을 감안할 때,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입장을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경제 모델'로 대별할 수 있음
- 먼저,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적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장영역에서 농업부문의 신 성장 동력 마련을 강조
  - 전통적인 농식품의 공급사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
  - 대표적 사례로 순창군의 장류, 임실군의 치즈, 고창군의 복분자 등을 들 수 있는데, 특정 품목의 가공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의 개편과 상품화 전략이 강조되는 양상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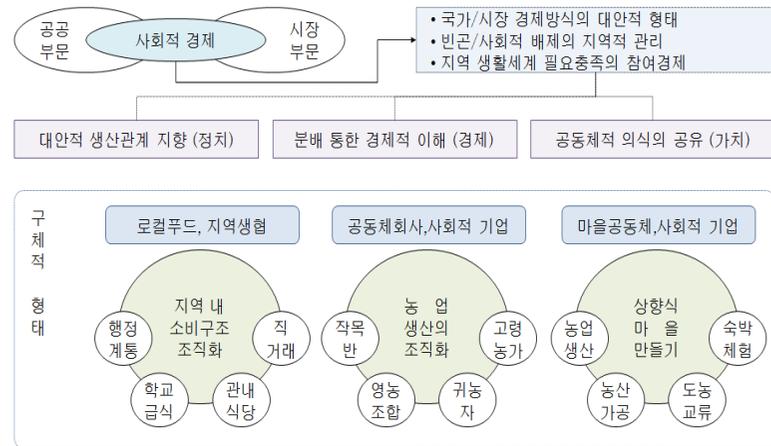
6) 지역농업은 일정지역에서 대다수의 농가가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개별경영 조건의 차이를 협조적·집단적·조직적인 관계를 통해 보완하면서 개별 농업경영을 해나가는 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탄력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결국 지역농업의 추진은 지역농업 조직화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황영모(2011b)를 참조.

<그림 2>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악하는 6차 산업화



**활성화 사례** 순창군 장류, 임실군 치즈, 고창군 복분자 등

<그림 3> 사회적 경제 모델에서 파악하는 6차 산업화



**활성화 사례** 진안군 마을만들기, 완주군 건강한 밥상, 임실군 치즈마을 등

○ 이에 비해 사회적 경제 모델은 지역적 관점에서 6차 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공영역과 시장 영역에 걸쳐 실천되고 있음

- 주로 대안적 생산관계, 분배를 통한 경제적 이해, 공동체 의식 공유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둠
-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완주군의 건강한 밥상, 임실군의 치즈마을 등을 들 수 있는데, 마을이 기본 활동단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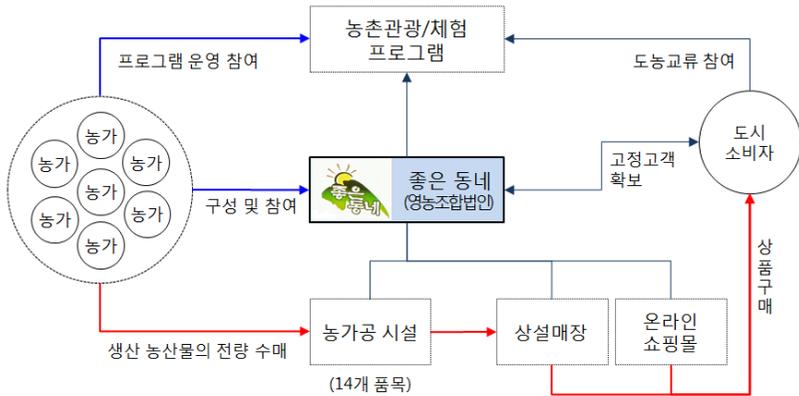
### 3. 전라북도 6차 산업화 실천 사례

#### (1) 진안군 '와룡마을'

- 와룡마을은 용담댐 수몰의 이품을 딛고 농산물 가공, 판매, 도농교류·체험 등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
- 1995년 99가구 경지 102ha → 2010년 21가구 경지 8ha
- 주로 약초류(17ha)와 고추·산초 6ha, 수도작 2ha의 열악한 영농조건
- 마을리더(강주현)의 헌신적인 활동과 마을 경영능력이 원동력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지산지공(地産地工)'의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영농조합법인 좋은 동네)에서 전량 수매하여 농가는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
- 소규모 농가공 시설을 구축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상품화하여 유통·판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품목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음
- 2010년 현재 3개 품목의 14종에 달하는 농산 가공품을 개발
- 1회성 기초 식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식품을 지향
-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도농교류(마을만들기 사업)를 통해 고정고객 확보에 중점 (2009년 마을 방문객 8천여명 중 고정고객이 1,400여명)
- 직거래 상설매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

7) 최근 활성화 사례의 조사 분석에서는 경영체로서의 이익창출을 주요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그림 4> 진안군 와룡마을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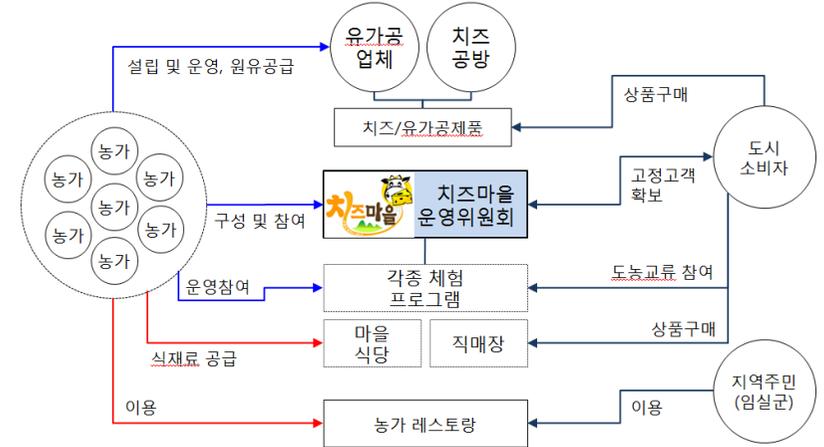


## (2) 임실군 '치즈마을'

- 치즈마을은 오랜 생산의 조직화에 기반한 내적 역량이 마을 만들기(도농교류)의 성과 나타나고, 생산, 가공, 농가레스토랑, 체험 등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실천하는 사례
  - 치즈마을은 74가구(183명)가 사는 수도작 중심의 농촌마을로 한국 최초로 치즈가 만들어진 지역 (지정환 신부, 1967년)
  - 친환경 농업 실천의 생산조직을 중심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을 시작 (2003년~)
- 마을이 가진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공, 판매,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창출
  - 마을리더(이진하, 조기현)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지속적인 노력
- 치즈마을 운영위원회(영농조합법인)를 중심으로 개별 주민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도농교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농가소득으로 귀결
  -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치즈체험장, 농특산물직매장, 숙박, 식당, 사무실 등
  - 농가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 경운기, 초지낙농, 산양비누, 산양, 농가 레스토랑, 피자 체험장, 치즈 아카데미, 목공 등
  - 농가 직접 운영 가공사업 : 이플유가공, 개인 치즈공방(2개)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하면서 기여율에 따라 매출액의 상당액을 참여주민에게 분배
  - 전체 매출액의 62.5%를 참여주민(59농가 88명)에게 분배 (2010년)
  - 개별체험 83.3%, 치즈체험 47.7%, 마을식당 35.9%, 판매장 77.4%, 사무실 100% 등
- 사업을 통한 수익의 일부는 마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적립

- 어린이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마을경관조성기금, 인재육성장학기금, 지역사회기부금, 중장기 발전기금 등 1억3천만원을 적립

<그림 5> 임실군 치즈마을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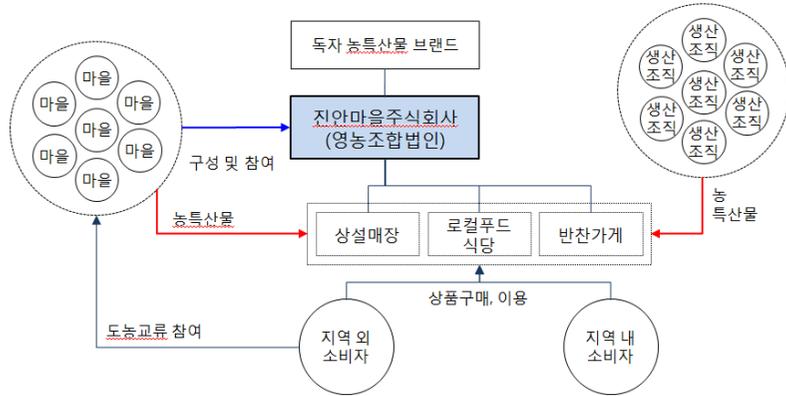
## (3) 진안군 '진안마을주식회사'

-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10여년에 걸친 주민주도 내발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농특산물 판매혁신을 위한 6차 산업화를 실천·확장하는 사례
    - 진안군 차원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sup>8)</sup> 실행 마을이 참여한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금요장터(91회) 등의 결과로 탄생
    - 마을 및 단체 등 47명이 참여하여 자본금 1억원을 조성
  -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친환경 농업, 농가공 등의 상품개발, 도농교류, 직거래 유통 등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체
    - 로컬푸드 상설매장 활성화와 독자 브랜드 상품개발로 영세농가의 소득향상 기여를 목적
    -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및 관계 기관·단체간의 경제적 네트워크 구축
  - '생산의 조직화, 소비의 조직화, 상품화' 등의 3대 전략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
    - 생산자 조직화 :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지역 내 생산자 조직(법인·단체)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구매
    - 소비자 조직화 : 꾸러미 사업을 통한 내부 소비자 조직화 및 도농교류·마을축제 등의 고정고객
- 8) 진안군 차원의 주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린빌리지(주민 주도 마을경관 개선 사업), 으뜸마을가꾸기(학습과 토론을 통한 성과 모델 창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구자인 외(2010)을 참조.

**확보**

- 다양한 상품화 : 마을출하 제철상품 및 독자 브랜드 상품 개발, 지역 내 특산물 연계 판매
- 공공성(지역주민의 소득향상 환원)과 수익성(최대 수익의 확보)의 조화를 통한 경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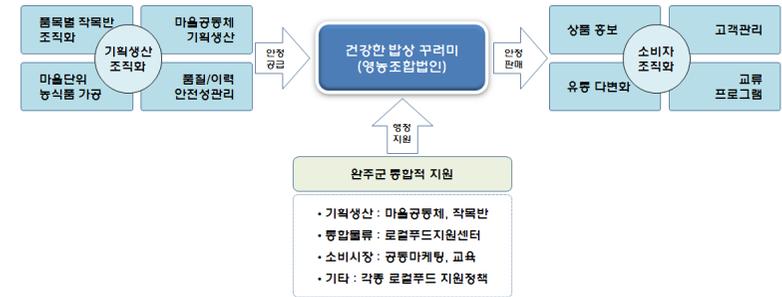
<그림 6> 진안마을 주식회사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4)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 완주군은 다품목 소량생산의 지역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마을회사, 두레농장 등의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소농·가족농·고령농 등이 참여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마을회사 100개 육성을 목적으로 함
  - 로컬푸드 생산거점의 확충을 위해 공공이 제공하는 공동의 생산시설을 위한 두레농장 사업을 실행 (총 5개소 운영중)
- 특히,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는 지역의 농업 생산자와 도시권(전주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사 회지원농업(CSA)의 형태
-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건강 밥상'이 사업추진 주체로 2010년 10월 꾸러미 공급을 시작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리더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직으로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발전하고 있음
  - 농가 120명, 직원 16명이 월평균 125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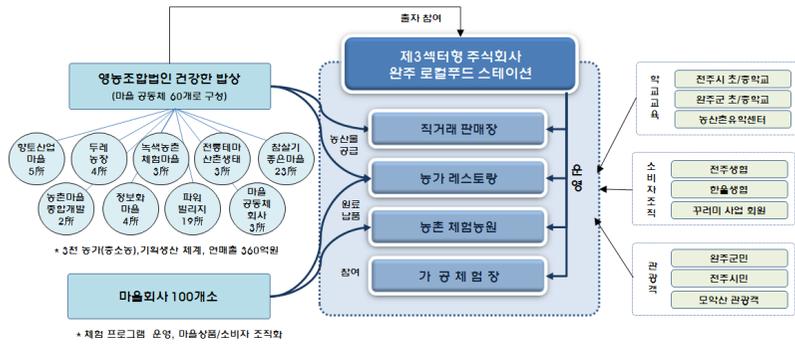
<그림 7> 완주군 건강한 밥상의 생산-유통-지원구조



\* 자료 : 나영삼, 2011.

- 건강밥상꾸러미는 마을공동체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작목반)을 기초로하여 추진되고 있음
  - 개별 생산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납품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전략상품(유정란, 두부, 콩 나물 등)은 마을 및 작목반의 공동생산을 장려
- 건강한 밥상 꾸러미는 신선식품, 제철채소, 제철과일, 가공식품, 육류 등 11가지 품목으로 구성
  - 이들 품목을 채배하고 생산하기 위해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내 계약재배사업단 운영을 통해 연 중 철저한 기획생산 체계를 갖춘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
  - 꾸러미 가족 마을 팸투어, 직거래 장터 체험행사,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등
-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확대·발전을 추진 중
  - 농산물생산 : 다품목, 품질관리, 작부체계, 가격, 이력관리 등을 관리
  - 농식품가공 : 마을·지역공동체의 조직화를 거점가공센터로 확대
  - 소비자관리 : '가치와 관계'를 전면화하고 얼굴 있는 먹거리 강조

<그림 8> 완주군 건강한 밥상의 6차 산업화 실천 모형



#### 4. 전라북도 6차 산업화 정책 사례

#####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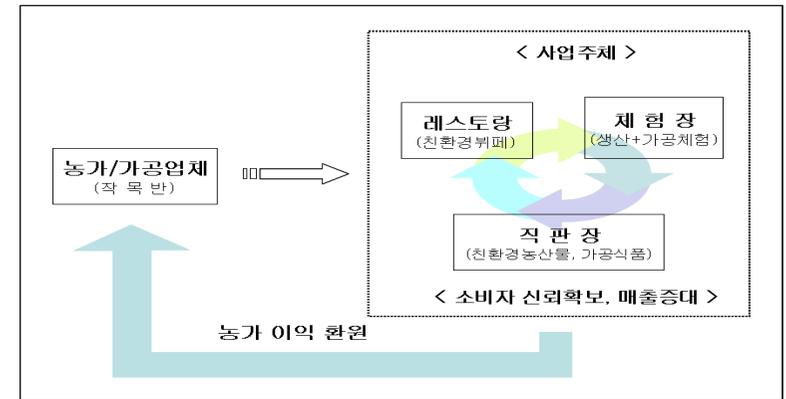
- 2010. 8. 진행된 일본의 농산촌 재생 또는 활성화 사례의 벤치마킹 결과에 바탕을 둠
- 오야마 농협, 모쿠모쿠 농장, 슈슈농원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실천사례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농촌 활성화 모델 구축을 시도

- 오야마 농협 농특산물 직판장
  - 작목반 중심으로 농협 제공하는 유기효소비료로 재배한 유기 신선농산물과 농가공품 판매 (200여종의 소량, 다품목, 생산자 이력 표시)
  - 수입분배 : 농협 20%, 농가 80%
- 오야마 농협 레스토랑
  - 원재료, 재배방법 등이 분명한 인근 유기농 채소 활용한 뷔페식당
  - 믿을 수 있는 식재료와 일반 가정주부의 순수한 손맛이 담긴 요리
  - 신선 농산물 구매 방문객과 관광객이 주요고객 (규슈 내 8개소 운영)
- 모쿠모쿠 농장 가공체험
  - 소세지와 햄, 치즈, 빵, 만들기 체험공방 운영
  - 자체 소세지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모쿠모쿠 브랜드로 판매
  - 4만가구 회원 중심으로 정보지, 팜플렛 배포 및 마스크 홍보
  - 현지판매 20%, 인터넷 80%
- 슈슈농원 농업체험
  - 월별, 계절별 생상품목별로 영농체험시설 운영
  - 12~5월(딸기), 6~7월(블루베리), 8~9월(배, 포도, 멜론)
  - 열매에 이름을 새겨 넣어 재방문 동기 유발

##### (2) 목적

-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거래가 농가에 소득환원,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식품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 소득모델 육성

<그림 9> 전라북도 6차 산업화 시책 추진의 개념



##### (3) 시책내용

- 신규 조성은 지양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인 마을 등 기존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역량이 구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식품 6차 산업화의 핵심시설에 대해 지원
  - ※ 기존 사업지구 : 15개 사업 510개 마을(체험마을 366개, 사회적 기업108개, 산업형 사업 36개)
- 운영주체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주체들(작목반, 민간 생산자단체, 농·축협, 민간기업, 행정, 마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
  - 사업단의 조직형태는 참여주체의 경영능력, 지역여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운영모형을 선택하되, 책임 경영체(별도 법인화)로 구성 운영
- 지원내용
  -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매출 및 방문객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시설
  - 영농·가공 체험장, 직판장, 레스토랑,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지원규모

- 개소 당 20~50억원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계획 심의에 따라 조정
- 성공 가능성의 기본요건을 갖춘 대상지 선정
  - 역량 : 기존 사업을 통해 인프라 등 역량이 구축된 지역
  - 입지 : 소비지를 배후로 하여 일정수 이상 고객이 확보된 지역
  - 신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관리능력
  - 주체 : 비즈니스 리더, 경영능력 등 구성원의 열정
  - 소득환원 : 발생된 이익이 참여농가에 환원되는 이익배분 체계
- 추진절차
  - 사업선정, 추진하기 전까지 컨설팅을 통해 형식과 내용을 제구성
  - 추진과정에서는 운영전반 컨설팅을 통해 진단·평가하고 성과 확산

## 5. 6차 산업화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1) 6차 산업화 논의의 시사점

- 산업 간 연계 과정에서 생산자 영역이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함
  - 실제 산업 간 연계 또는 연결 과정에서 농업생산의 영역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도외시되거나 종속화 될 우려가 있음
  - 6차 산업화가 기업적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감소에 대응한 생산의 조직화와 고용·소득확보가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임

<그림 10> 일본 농수산 6차 산업화 사례의 유형분류 및 분포

계약재배	가공	직거래(직매)	레스토랑	연구개발
3%	22%			2%
3%		4%		
	27%		7%	
	19%	13%		

\* 자료 : 農林水産省, 6次産業化の取組 事例集, 2011에서 작성

- 6차 산업화가 실행되는 범위가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반 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일본의 농상공 연계 유형 및 참여주체에서도 확인되는데, 농업생산자조직, 협동조합, 지역단위 소규모 업체의 참여가 중요
  - 지역농업의 가치와 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주체의 결합을 통해 지역자산(가치)의 증가를 구조적으

로 강제해 나가야 하기 때문

<표 2> 일본 농상공 연계 활성화 사례의 유형 및 참여주체

유형분류	사례	참여 및 주도 주체
농축수산물 활용 신상품 개발	47건	재단법인,상공회의소,중소기업동우회,주식회사,유한회사,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새로운 서비스 제공	15건	주식회사,상공회의소,협동조합,농협,영농부회
새로운 생산방식·판매방식 개발	26건	주식회사,유한회사,농업조합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	25건	주식회사,재단·사단법인,상공회의소,협동조합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9건	품목연구회,주식회사,상공회의소,농협영농부회,농사조합법인

\* 자료 :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農商工連携 88選 事例一覽, 2008에서 작성

- 산업적 영역의 성과창출을 위해 농식품 가치사슬에 입각한 생산계획, 생산과정, 판매전략에 걸친 혁신의 세부과제를 실천해야 함
  - 시기, 품목, 대상에 입각한 상품 만들기라는 생산계획의 혁신(market in)이 중요 (소비자 직접 마케팅, 판매관리 정보의 활용)
  - 생산 노우하우의 메뉴얼화, 투입재(자재·종묘 등)의 저비용, 채산성이 높은 가공기술, 선도·재고 관리 등의 효율성이 높은 생산 및 상품 공급체계 최적화를 위한 혁신이 필요

### (2) 6차 산업화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 6차 산업화를 담당하는 경영인재(경영자)의 육성
  - 생산자의 생산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가공→판매⇒고객'이라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는 전문 경영자가 필요
  - 국내외 활성화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전문 경영자의 존재와 역할이 성과창출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6차 산업화를 지원할 코디네이터의 활약과 육성
  - 산지 내, 산지 간, 타 산업과의 연계가 6차 산업화의 핵심인 바, 이들 간의 연계를 추진, 관리할 지원인력 육성이 필요
  - 코디네이터는 참여주체 간의 연계 지원활동은 물론 소비자 접촉과 시장영역에서의 마케팅 혁신 능력도 갖추어야 함
- 6차 산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투자의 지원
  -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논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정책화·제도화한 사례임에 주목해야 함
  - 정책의 근거(법률) 마련과 지원체계9)의 구축 등 제도마련이 우선시 되고, 기존 정책을 재배치해

9) 충청남도는 농공상 협력 활성화와 지원을 목적으로 6차 산업화 센터를 2011년 6월 중남발전연구원 내에 신설.

야 함

-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나 자금의 조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내 기존 주체(협동조합)와 사회 인프라 활용도 필요

## 참 고 자 료

구자인 외,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경험』,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010.

김태근, '일본,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촌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칼럼, 2008.

농림수산식품부,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9.

이동필 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2007.

전라북도,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검토자료(내부자료)', 2011.

전북발전연구원,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Issue Briefing 42호, 2011.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 6차 산업화 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2011.

황영모, '일본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전북발전연구원, 2011a.

황영모, '지역농업이 가는 길 : 농업생산자 조직화 사례', GS&J인스티튜트, 2011b.

今村奈良臣, '農業の6次産業化の路線提起の歴史を問う', JA総合研究所 Web サイト, 2010.

吉田成雄, '農業の6次産業化の先端から見えるもの', JA総研レポート, JA総合研究所2010.

小田切徳美, 『農山村再生の課題』, J A 共済総研セミナー 講演録, 2008.

生源寺眞一, 『現代日本の農政改革』, 東京大學出版會, 2006.

農林水産省, 「6次産業化の生産性向上に係る調査報告書」, 2011.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農工商連携 88選 事例一覽」, 2008.

農林水産省, 「6次産業化の取組 事例集」, 2011